

영국의 범죄정보 기반 경찰활동에 관한 연구*

장 광 호** · 김 문 귀***

〈요 약〉

경찰에서 범죄정보는 범죄에 대응하는 경찰 본연의 활동을 위한 의사결정의 근거이다. 경찰의 의사결정은 개별 사건의 수사와 범죄예방뿐만 아니라, 자원의 배분, 조직 우선순위 결정 등 다양한 유형에서 이뤄지고, 이 과정에서 범죄정보는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된다.

본 연구는 영국 경찰이 범죄정보를 분석하여 경찰활동에 반영하는 활동을 조사하고 이를 한국 경찰과 비교하여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실시했다.

영국은 지방경찰체제를 근간으로 중앙경찰기관을 운영하면서 전 국가적인 범죄 정보를 운영하는 제도를 국가정보모델(NIM)로 정착시키고 있다. 중앙집권식 경찰활동이 아닌 조정과 협력을 통해 범죄와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경찰기관의 정보부서는 통합적인 범죄정보 분석을 통해 범죄를 예방, 제압할 뿐 아니라, 선제적이고 융합적인 방식으로 경찰 의사결정을 지원하고 있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 경찰은 각 부서별로 통계, 사건정보, 심리행동 정보 등 유형별 범죄 정보를 운영하고, 이를 활용하는 방식도 통합적으로 형성되어 있지 않다. 또한 조직적으로도 범죄정보를 기반으로 조직의 의사결정을 효율적으로 분석 활용하는 사례가 영국에 비교하여 활발하지 않다.

향후 발전을 위해 범죄정보에 대한 통합적인 운용제도와 분석 조직을 구성할 필요가 있다. 범죄정보 분석 조직은 현재의 정보부서의 역할을 재편하거나, 각 부서의 현재 역할을 유지하면서도 정보시스템을 통해 별도의 분석 시스템을 운영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주제어 : 경찰, 범죄정보, 범죄분석, 영국, 의사결정

* 본 논문은 장광호 외 (2014), 범죄정보 기반 경찰운영(영국 경찰과의 비교 중심), 2014년 경찰청 특수과학기술분야 국외팀 훈련결과보고서의 일부 내용을 수정·심화한 것임.

**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 과학기술연구관리계장(제1저자).

*** 호서대학교 법경찰행정학부 조교수(교신저자), moonkwi10@gmail.com.

목 차
I. 서 론 II. 이론적 배경 III. 영국 경찰의 범죄정보 운영 체제 IV. 한국 경찰에의 시사점 V. 결 론

I. 서 론

2018년 1월 청와대는 경찰, 검찰, 국정원 등 권력기관의 개혁안을 발표했다. 이 개혁안은 권력기관들의 작동에 견제와 균형 원리를 반영하는 취지이며, 경찰에게 있어, 기능과 조직의 분화를 예고하고 있다. 국가수사청 설치를 통한 수사·행정 경찰의 분리와 자치경찰의 도입이 조직 분화의 큰 줄기이다. 이 방향에 대해 경찰 내·외에서는 필요성을 공감하면서도, 관서와 부서 간 공조 부족으로 인한 비효율이 발생할 것을 우려하는 의견도 있다. 한편, 경찰 개혁의 한 주제로서 ‘정보부서’의 역할에 대한 논의도 상당하다. 경찰이 정보를 처리하고 공유하는 효율적인 구조에 대해 논의할 적절한 시점이다.

경찰에서 범죄정보는 범죄에 대응하는 경찰 본연의 활동을 위한 의사결정의 근거이다(박주원, 2004: 52). 조직은 조직 목적을 위해 의사결정을 하고, 많은 정보를 필요로 한다. 경찰 역시 마찬가지이다. 경찰의 의사결정의 유형을 고려하여 다음 질문을 해보자. A. 경찰은 2013년부터 ①성폭력 ②가정폭력 ③학교폭력 ④불량식품을 4대 약으로 선정하고 대대적인 단속을 한 바 있다. 이처럼 인력, 예산 등 경찰 자원 투입의 우선순위를 설정하는 것은 어떤 정보와 분석 과정을 근거로 하는가?

B. 전화금융 사기는 다양하게 진화하여 많은 피해를 양산하고 있다. 경찰은 근절

되지 않는 전화금융 사기에 대응하면서, 충분한 정보에 기반하고 있는가?

C. 세월호 참사 관련, 해운회사 사주 유병언을 검거하려던 경찰의 노력은, 신원 미상 변사체로 발견된 유병언에 대해 빠른 시간에 파악하지 못해 신뢰성을 지적 받았다.

위 사례들은 경찰의 의사 결정과 소요되는 정보에 대한 질문이다. 사례에서 보듯 경찰의 의사 결정은 ‘범인을 잘 잡는’ 것 이상의 다양한 분야에서 이루어진다. 다양한 정보가 필요하고, 그 정보를 분석하고 의사결정에 반영하는 과정도 과학적 방법을 추구하려는 노력이 있다. 본 연구는 범죄에 대한 정보를 기반으로 경찰 의사결정을 하는 제도에 대해 영국 경찰의 체제를 소개하고 우리 경찰과 비교하여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실시했다.

영국 경찰은 근대경찰의 시초로서 정보를 통해 경찰 의사결정을 통합하는 조직과 제도를 꾸준히 발전시켜왔고, 최근에는 국가정보모델(National Intelligence Model, 이하 NIM)의 도입, 국가범죄청(National Crime Agency, 이하 NCA)의 신설과 지방경찰 제와의 조화, 범죄정보 중심의 정보 조직 운영이라는 특징을 갖고 있다. 또한 영국은 적은 자원으로도 선진국의 지위를 유지하면서 그 근간에는 스코틀랜드, 아일랜드 등 갈등 소지가 많은 연방 체제를 잘 운영하고 있다. 한편 영국은 세계적으로 유래가 깊은 다문화국가 사회이다. 이러한 근간에는 안정적인 치안과 갈등 관리가 자리하고 있다. 그런 특성은 앞으로 다문화사회로 전환되고, 지방자치 경찰의 논의가 시작되며, 긴 안목으로는 통일을 염두에 뒀야 하는 우리 현실에 시사점을 줄 수 있다고 생각된다. 이런 의미에서 영국 경찰의 범죄정보 운영 체제는 우리 경찰에게 관련 시스템의 운영과 관련한 착안점과 개선 방향을 제시할 수 있다.

연구는 영국 경찰과 한국 경찰의 범죄 정보 기반 경찰 활동에 대해 제도적으로 비교하는 것을 범위로 했다. 연구 방법은 논문과 양국 경찰과 연구기관 등이 발간한 자료에 대한 문헌 연구를 중심으로 하고 양국 경찰 구성원과 연구자 등 관계자에 대한 비구조적 인터뷰를 반영했다. 문헌 연구는 제도·행태 등을 비교할 수 있는 연구 자료와 경찰기관의 발간 자료, 내부 문서 등을 중심으로 수행되었다. 양국 관계자들에 대한 인터뷰는 경찰기관이 범죄정보를 처리하는 제도와 조직 운영, 행동 문화에 대한 내용을 문답했다. 이러한 문헌 연구와 비구조적 인터뷰 내용을 비교대상인 제도와 조직 중심으로 정리해 본문에 기술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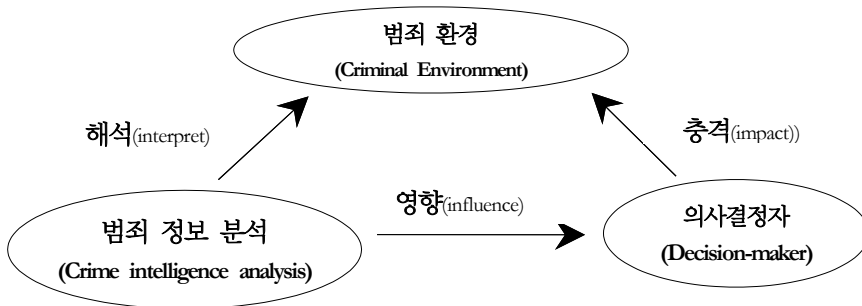
II. 이론적 배경

1. 정보 주도 경찰활동(Intelligence-led policing)

정보 주도 경찰활동(intelligence-led policing, 이하 ILP)은 경찰 및 법집행기관, 넓게는 민간 및 사회공동체 등 다양한 주체 간 정보 유통·분석·제공을 통해 범죄를 감소시키는 경찰활동을 말한다(한상암 외, 2013). 정보(information)를 다양한 원천에서 수집하고 경찰이 범죄 행태를 판단·중단·개입하게 하는 제반 활동이 포함된다.

ILP라는 용어는 90년대 초 영국 켄트(KENT) 경찰청에서, 개별 사건 대응보다 장기간 범죄패턴을 측정하여 감소시키는 방법으로서 그 성과가 입증되면서, 영국 전역으로 확대되었다(James, 2013: 13).

아래 <그림 1>과 같이 범죄환경을 정보로서 분석하여 의사결정자에게 제공함으로써 범죄 환경을 변화시키는 것이 기본 개념이며, 의사결정자를 둘러싼 여러 요소(언론, 타 정보기관, 타 경찰기관, 민간영역 등)와 영향을 주고받는 경찰활동이 바로 ILP라 할 수 있다.



<그림 1> ILP의 3-1 모델

ILP는 지방경찰 내 각급 행정기관, 민간기구, 시민 간 정보 유통을 핵심으로 하여, 정보유통의 수집·평가·활용·환류 등으로 발전되었다. 단순히 정보 입수를 통한 순찰 배치나 수사정보 획득이라는 개별 사건 차원을 넘어서, 통계분석을 통한 정책 입안과 발생 범죄 추세 분석을 통한 예방은 물론, 상세한 범죄정보 분석(연령, 동기,

재범률, 주된 발생지역, 피해자 분석 등)을 통해, 타 행정기관(주로 지방정부 등)의 정책에 반영하게끔 발달한 것이다(Ratcliffe, 2007: 43-64).

또 정보의 축적·분석을 통해 경찰의 의사결정(자원 배분 및 투입, 우선순위 결정 등)을 하는 근거가 되고 있다. 정보 주도 경찰활동이 확산되면서, 지방경찰 내부뿐만 아니라 지방경찰 상호 간, 지방경찰과 중앙정부 간, 중앙 정부 내, 지방경찰과 중앙정부 및 민간 연구까지 그 활용 범위가 확장되고 있다.

이렇게 활용되는 범죄정보의 유형과 활용의 범위에 대한 이론은 다음과 같다.

2. 범죄분석에 대한 이론

1) 범죄정보의 유형

범죄정보는 주로 ‘사건수사 정보’로 인식하지만, 학술/이론적 개념은 통계와 수사 정보, 심리행동 정보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된 개념으로 수사는 물론 정책수립, 예방 등에 모두 반영되는 자원이라 할 수 있다(이동환·표창원, 2005: 19-21).

경찰활동에서 이 같은 역할을 하는 정보는 당연히 범죄에 관련된 정보들이다. 이에 대한 학문적/실무적 구분은 다음과 같다(이동희 외, 2005: 217-230).

첫째, 통계적 범죄정보이다. 범죄 통계를 말하며, 범죄의 경향성 및 발생과 검거에 대한 추세 등 범죄 분석을 위한 정보이다.

둘째, 범죄사건 정보이다. 개별 범죄사건(특히 조직성 범죄의 경우)에 있어 범죄자들 간의 관계와 행동계획, 자금 흐름 등을 밝혀 수사에 활용하는 범죄정보들을 의미한다.

셋째, 심리행동 정보이다. 범죄인들의 행동, 심리를 데이터베이스로 축적하여 수사상 분석기법을 활용하는 즉 「프로파일링」(이하 범죄행동 분석 정보)이 있다.

범죄정보는 이러한 정보의 성격 뿐 아니라, 정보의 활용 방식에 따라서도 분류되는데, 각 분류는 다음과 같다.

2) 범죄정보의 활용

정보를 그 활용방식에 따라 전략정보, 전술정보, 작전정보 등 등 세 가지 혹은 더 세부적으로는 전술정보를 ‘전술정보와 작전정보’로 분류하는 견해가 있다(Ratcliffe, 2007: 56-59). 여기에서는 전략정보, 전술정보, 작전정보 세 가지 분류법에 따라 설명

한다.

첫째, 전략정보(strategic intelligence)로서의 활용이다. 전략정보는 법집행기관의 장기적 목표에 초점을 맞춘 정보로서, 범죄환경에서 현재와 새로 나타나는 추세, 공공 안전과 질서에 대한 위협, 이를 통제할 수 있는 대응 방법 개발 등에 도움이 되는 정보이다.

둘째, 전술정보(tactical intelligence)로서의 활용이다. 전략적인 범죄정보가 장기적인 추세와 경찰 활동의 우선순위에 대한 정보라면 전술정보는 구체적인 범죄 사건에 대한 의사결정에 대한 정보라고 할 수 있다. 즉, 특정 관서 또는 부서 혹은 팀에 있어 해당 관할의 빈발하는 특정 범죄를 막거나 검거하기 위해 특정 시간대에 일정한 인력을 배치하고 순찰 또는 검거활동을 결정한다면 이는 전술의 자원 배분을 위한 활동에 해당한다.

셋째, 작전정보(operational intelligence)로서의 활용이다. 전략정보가 경찰 기관 혹은 관서 단위의 우선순위 의사결정의 기반으로서 기능하고, 전술정보가 관서 혹은 부서 단위의 자원 배분 단위 의사결정의 기반으로서 기능한다면 작전정보는 경찰 개인 혹은 팀 단위의 구체적인 범죄사건 대응을 위한 의사결정의 기반이 되는 정보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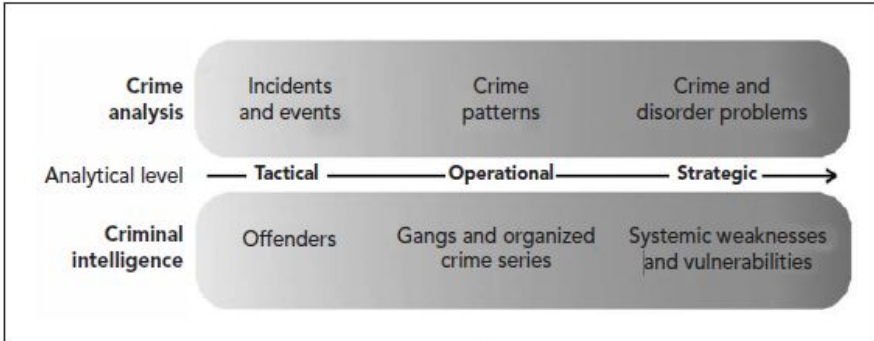
즉, 특정 사건 범인을 검거하기 위해 자금 추적, 조직도, 공범 등의 정보를 취합하고 범인의 행방, 어떤 증거로 혐의를 입증할지 등 불법행위의 특정한 요소와 관련된 가설과 추론, 대응을 위한 의사결정 필요 정보를 수사팀에 제공한다.

이렇듯, 정보의 활용 목적과 범위에 대한 구분을 전략, 전술, 작전이라는 세 가지 측면으로 구분하여, 전략정보는 조직 활동의 우선순위 설정, 쉽게 대처하면 정책 수립을 위한 정보, 전술정보는 인력·예산·장비 등 자원 배분을 위한 정보, 작전정보는 구체적인 범죄 사건을 제압하거나 예방하기 위한 정보로 이해된다.

3) 최근 범죄분석의 융합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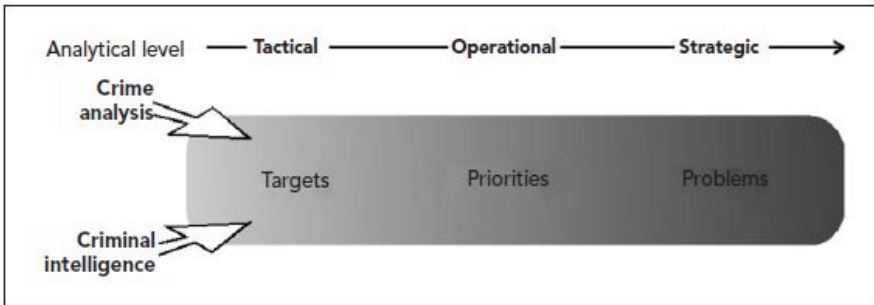
위의 분류법은 범죄정보에 대한 인식을 정립하는데 도움을 준다. 그러나 실제에 있어서는 최근 정보처리 기술의 발달로 인해, 범죄정보의 분류와 활용이 융합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아래 <그림 2>와 <그림 3>은 분리모델과 통합모델의 차이점 및 통합모델의 효과성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2] 상호 독립적인 범죄분석과 범죄정보의 단일 분석모델

※ 출처 : Ratcliffe, J. H. (2007). *Integrated Intelligence and Crime Analysis: Enhanced Information Management for Law Enforcement Leaders*, Police Foundation, p. 61.



[그림 3] 범죄 및 정보분석의 통합모델

※ 출처 : Ratcliffe, J. H. (2007). *Integrated Intelligence and Crime Analysis: Enhanced Information Management for Law Enforcement Leaders*, Police Foundation, p. 61.

통합분석모델에 따라 범죄활동과 범죄자들에 대한 정보를 통합하게 되면, 범죄문제 중심의(problem-oriented)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해준다. 또한 범죄자에 대한 정보와 범행에 대한 정보를 통합하여 관리하고 이를 활용하게 되면 범죄문제에 대해 효과적인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이 더욱 용이해질 것이다.

작전 차원에서 단기적으로 범집행을 집중할 대상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보호대상 혹은 장소가 될 수도 있다. 전술차원에서 자원배분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마지막으로 전략 단계에서는 장기적 해결과제로서 범죄문제와 시스템적 취약점과 관련된 문제를 파악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영국은 이러한 통합모델을 발전시켜오고 있는 나라이다. 이하에서는 영국의 범죄 정보 기반 경찰활동에 대해 살펴보고 그 함의를 도출할 것이다.

Ⅲ. 영국 경찰의 범죄정보 운영 체제

영국 경찰은 수도 경찰청, 런던시 경찰청과 41개(잉글랜드와 웨일즈지역) 등에 43개 지방경찰청을 두고 있다. 그 운영은 ① 내무부 장관과 NCA ②지방경찰청장 ③ 지방경찰위원회 ④지역치안 평의회라는 4원 체제로 이루어진다(김학경·이성기, 2012: 158-164).

영국 경찰은 자치경찰 운영의 전통에 기반하여, 기관 간 수평적 연결을 중시하고 명령이 아닌 정보로 상호 조정하는 체제를 발전시켜왔다. 이러한 특성이 지방자치 체제와 권력기관 관계 재편을 통해, 수평적 정보 교류를 준비해야 하는 시점에 있는 한국 경찰의 측면에서는 그 시사점이 적지 않다.

영국 경찰에서 국가 단위, 광역도시 단위, 지방 단위에서 범죄정보 기반으로 운영 되고 있는 제도들은 다음과 같다.

1. 국가 단위 범죄정보 운영

1) NIM 운영

영국의 범죄정보 유통은 영국 정부가 2002년부터 도입한 정보체제인 NIM을 기본으로 한다.

영국의 모든 경찰/법집행/정부기관은 범죄에 대한 정보를 기록, 평가, 유통, 활용 하는데 있어 NIM이라는 통일된 규격과 기준을 사용한다. 이는 경찰기관 내(기능 간, 관서 간) 및 여타 다양한 법집행 기관 간에 범죄정보를 체계적으로 유통하고 기관 별·부서별 역할을 조정하기 위함이다.

NIM의 유통 체계는 <표 1>과 같이 정보보고서의 작성, 정보의 평가(원천, 내용, 활용범위), 사용 결정 등의 요소들로 구성되어 있다. NIM이 설정한 기준에 따라 경찰은 범죄에 대한 경찰 자원투입에 대한 전략을 수립하고 작전을 수행한다(NCPE, 2005: 25-27).

〈표 1〉 NIM의 작성·평가·활용 기준(모든 국가기관 공통)

구분	착안점
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양식〉요점(case summary)을 250 단어 내로 작성 ◦〈필요성〉△왜 경찰에서 다루는지, △새로운 정보인지 ◦〈내용〉①최신 정보 ②‘사실’에 입각 ③他 기관과 중복 유의 ④활용 방안 제안 ⑤투입자원 ⑥관련 시간 ⑦정치적 쟁점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활용 주제〉1레벨(지역 단위) 2레벨(2개 이상의 관서/지역 포함) 3레벨(국가-국제적 범죄) ◦〈정보 출처 평가〉A(항상 믿을만한 출처) ~ E(고의적인 역정보) ◦〈정보 사실성〉1(최고 등급) ~ 4(판단 불가)
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보 배포 범위〉1(他 기관 공유)~5(지정 제한 공개) ◦〈사용 방법〉1(무대응)/2(체포 작전)/3(협력/회신 필요)

이 중 영국의 국가 경찰이라 할 수 있는 NCA의 범죄정보 운영체제는 다음과 같다.

2) NCA¹⁾

영국은 2011년 기존 중대범죄청(Serious Organised Crime Agency, 이하 SOCA)을 NCA로 개편했는데, 가장 큰 차이는 다음과 같다. 첫째, NCA장관은 대상 중요범죄에 대해 내무부 장관에게 바로 보고하며 지방경찰에 지시한다. 이는 기존의 SOCA가 각 지방경찰에 협조요청 했던 것보다 강화된 것이다. 둘째, 각 ‘국’(Command)의 장들이 NCA 전체의 우선순위를 논의하는 의사결정 과정을 체계적으로 운영한다는 것 등이다. 여기서의 각 국은 작전국(Director Operation), 조직범죄국(Organised Crime Command-OCC), 경제범죄국(Economic Crime Command-ECC), 국경경찰국(Border Policing Command-BPC) 이동범죄국(CEOP Command), 정보국(Director Intelligence), 협력국(Director Cooperate Services)이다. 작전국은 실행조직이며, 정보국은 정보를 취합, 분석, 제공하는 부서이다. 협력국은 인력, 재정 등을 지원하는 부서로 보인다. 한편 조직범죄, 경제범죄, 국경경찰, 이동범죄는 NCA가 지방경찰에 우선하여 국가 경찰 단위에서 대응하는 중요 범죄이다.

이러한 중요 범죄에 있어 국가 전체의 경찰활동을 조정하고자, 각 분야에 있어, 특히 정보국은 실행조정팀(Tasking and Coordinatind)을 두고, NCA 및 영국 전체의

1) 이하 내용은 장광호 등의 ‘2014년 경찰청 국외훈련’ 수행 중 수집한 자료, 경찰기관 근무자의 인터뷰, 관련 기관 홈페이지 등을 종합하여 작성한 것임(이하 런던경찰청과 포츠머스 경찰서의 경우도 동일).

정보 흐름을 평가하면서 실시간으로 상황을 판단한다. NCA에서는 영국 법집행 기관들로부터 매일 지난 24시간 발생한 특정 현상(또는 사건)과 앞으로 24시간 예상되는 위협에 대해 정보를 받아 검토하고 이를 내무부에 보고한다.

광역 단위 및 기초단체 단위에서의 경찰의 범죄정보 운영은 매우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는데, 이하에서는 런던 경찰청과 포츠머스 경찰서에서 이루어지는 범죄정보 기반 경찰활동에 대해서 기술한다.

2. 광역 단위 경찰의 범죄정보 운영(런던 경찰청)

1) 정보 조직의 개괄

인구 720만 명의 런던 경찰청에는 경찰관 31,000명, 비경찰 직원 14,000명 등이 근무하는데, 정보부서 인원은 약 1,000명이다. 런던 경찰의 전체 정보부서는 60개이며 팀 단위로는 200여개가 활동한다. 런던 경찰청 정보국은 런던경찰본부와 정보중앙본부로 분할되어 있는데, 런던경찰본부에서는 CCTV를 통한 자동차량번호식별시스템(Automatic Number Plate Recognition, ANPR)을 운영하고 정보중앙부는 지원·분석 기구를 운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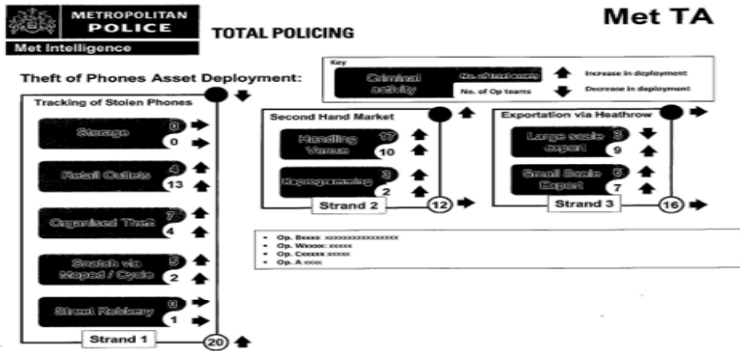
범죄정보 전반에 대해 기록·평가·배포팀, 전화·통신 등 정보팀, 트위터·페이스북 등으로 공개된 정보팀, 특정 작전에 정보 지원하는 팀 등을 활용한다. 또한 민감정보를 취급하며 다른 법집행기관 간 관계에서 위장 요원, 수용소 정보 등을 포함한 정보를 수집하는 활동을 진행하기도 한다.

2) 다양한 범죄정보 분석

런던 경찰청은 범죄정보를 활용하여 이를 다양한 경찰활동에 반영한다.

인터뷰를 통해 확인된 사례는 특정 지역의 노트북 절도 추세를 분석한 보고서이다. 이러한 지리적 범죄 분석은 보편적인 분석 방법의 하나로서, 지역의 범죄 발생을 분석하여 패턴을 분석하고, 다음 발생지를 예측하는 역할을 하며, 더 나아가 범죄시장을 분석하기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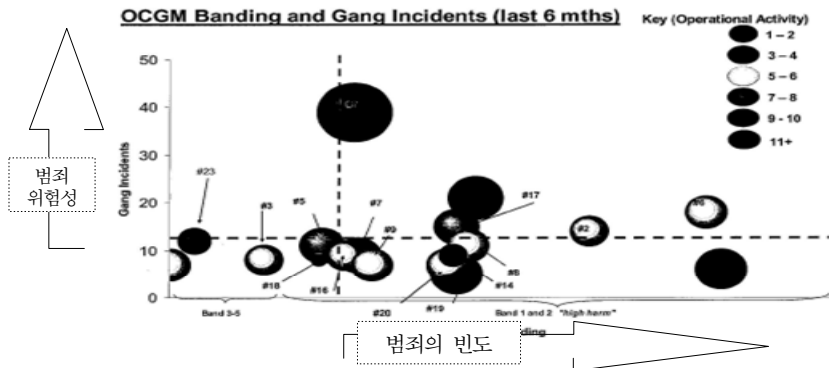
아래 <그림 4>는 런던 경찰청의 범죄정보부서에서 이목을 집중시키는 시기별 범죄에 대한 시장을 분석을 주기적으로 수행하는 사례이다.



<그림 4> 런던 경찰청의 스마트폰 절도 시장 분석

스마트폰절도가 기기 그 자체의 피해에 그치지 않고 저장된 개인정보/금융정보 유출로 인한 2차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이를 분석하여 경찰활동에 반영하고 있다고 한다. 위 그림에 표시된 바대로, 전체 스마트폰 장물 시장을 중고폰 시장, 공항을 통한 반출, 직접 보관 등으로 구분하여 흐름과 일정한 기간을 대비하여 그 증감량을 분석하는 방식이다.

또한 런던 경찰청은 범죄정보를 활용하여 조직범죄 활동을 분석하기도 한다. 런던 경찰청이 설명하는 범죄조직의 현황은 18개의 중요 범죄조직(serious gangs), 약 200 개의 주요 범죄조직(recognizable street gangs)이 있다고 한다. 이들에 대해 범죄빈도(양) 범죄의 심각도(양)를 분석하며, 이에 따라 대응 정도를 결정한다고 한다. 이를 분석한 그래프는 <그림 5>와 같다.



<그림 5> 런던 경찰청의 범죄조직 분석

3) 선제적 경찰 활동(Proactive policing)

런던 경찰청에서는 범죄정보 분석을 통해 ‘선제적 경찰 활동’을 실현하고자 한다. 선제적 경찰활동은 경찰력을 미리 행사하여 범죄를 예방하는 개념이다. ‘강력한 순찰 및 초기 검거’ 정도로 이해되기 쉽지만, 런던 경찰청에서 들은 설명은 그것보다 큰 범주의 활동으로 여겨진다. 즉, 높은 위험의 범죄에 대해 조기 제압 방법을 찾아내어 진압하는 방식으로 활용된다. 인터뷰에서 인용된 사례는 특정 범죄 조직이 인신매매를 통해 성매매 조직을 운영하는 사례였다. 런던 경찰은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에 대해서는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다. 대신 이 과정에서 확보한 조직의 마약 밀매 혐의로 체포, 기소하나 이후 인신매매와 관련된 정보 찾아내는 식으로, 정보를 이용한 선제적인 경찰 활동을 한다는 것이다.

3. 기초 단위 경찰의 범죄 정보 운영(포츠머스 경찰서)

1) 조직 운영 개괄

잉글랜드/웨일즈 지역 내 광역단위 자치경찰(43개) 중 하나인 햄프셔(Hampshire) 경찰청 산하의 경찰 본부다. 이 경찰서가 관할하는 포츠머스 시는 인구 20만 명의 도시인데, 포츠머스 경찰서는 이 시를 4개 지역으로 나뉘, 각 지역에 경찰서를 두고 있다. 1개 지역은 본부 직할, 3개 지역은 하위 경찰서가 담당하며, 전체 경찰 본부에서 일하는 경찰관과 일관직원의 합계는 약 300명이다.

경찰본부 전체에서 본부 경찰서에서만 정보 부서를 운영한다. 정보부서는 총8명으로 조사자(Researcher) 1명, 분석관(Analyst) 1명, 보조원(Assistance) 2명, Police Officer(Intelligence Officer) 4명, 책임자(Boss) 1명으로 구성된다. 이 정보부서 구성원들은 영국 가장 기본단위로서 범죄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며 이를 경찰활동에 반영한다.

2) 범죄 정보 운영

포츠머스 경찰서 정보과의 조사자는 수집되는 정보에 대하여 요약하여 정보 분석관에게 전달한다. 이때, 정보 요약 방식은 NIM의 기준인 ‘5W1H’에 따른다. 그리고 보조자는 요약된 정보들을 NIM의 기준으로 점수를 매겨 분석관에게 전달한다. 분석

관은 전달받은 정보들을 분석하여 다양한 분석을 한다.

주로 사용되는 분석은 범죄 빈발지나 연쇄범죄에 대한 지리적 분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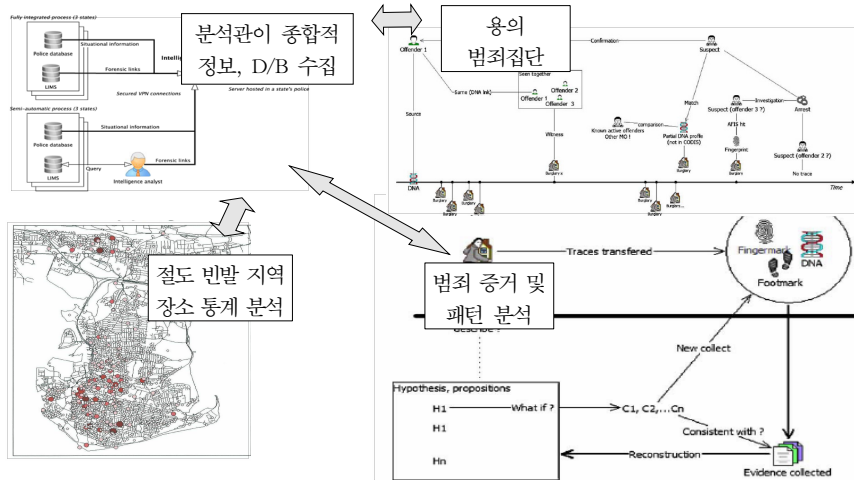
한편 정기적으로(월1회 혹은 4주에 1회) 「범죄정보 보고서」를 작성한다. 여기에는 주로 기존 범죄의 패턴 등을 분석하여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정보나 최근 문제되고 있는 범죄의 관련 정보(지문, 통신, DNA 등 종합한 조직체계) 범죄행동분석(소위 프로파일링 데이터베이스)들이 작성된다. 예를 들어, 작년에 일어난 침입절도 사건이 그 지역에서 재발할 가능성 있으므로 이를 예방하기 위해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이다.

3) 통합적 범죄분석 활동

범죄정보에 대해 미국이 범죄 통계와 사건 정보, 심리 행동을 각각 전문적인 영역으로 분류하여 발전시킨 반면, 영국은 통계-사건-행동 정보를 통합 분석하여 유용하게 발전시켰다는 견해가 있다(장윤식, 2012: 35).

실제 영국에서 통합적인 정보 분석과 활용이 적용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범죄정보 분석이 한명 혹은 한 부서에서 수집하고 분석하는 것인데 이를 도식화하면 아래 <그림 6>과 같다.

첫째, 지리적·통계적 분석을 통해 특정 지역에 침입절도가 빈번히 발생한다는 것을 확인한다. 이 분석은 해당 지역의 순찰과 수사를 강화하는 의사결정에 반영된다. 둘째, 범죄행동 정보를 확인한다. 분석된 침입절도의 범행 시간, 장소, 범행수단, 주요 피해품 등에서 예전에 발생했던 절도범과 유사점을 찾아낸다. 이런 행동분석은 예전 범죄의 재범 가능성이나, 당시 공범·모방범들을 추적하는 근거로 활용된다. 셋째, 범죄 사건정보를 통한 분석이다. 이렇게 추적하고자 하는 범죄 집단에 대한 정보를 최근 확보한 다른 자료를 통해 시각화하고, 단서를 발굴하는 과정이다. 예컨대 당시 범죄 집단들, 혹은 지금 확보한 용의자들의 통화내역 등을 상세분석하면 현재 추적하는 절도 집단의 특정 용의자가 의심스러우므로 그 행적을 추적할 필요가 있다는 결론이 가능하다.



〈그림 6〉 영국 범죄정보 분석관의 분석 보고서의 작성 방식

4. 영국의 범죄정보 분석·운영 체제의 특징

앞에서 살펴본 영국 경찰의 범죄 정보 분석과 운영의 착안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범죄분석에 대한 종합적 접근을 하고 있다. 2장에서 소개한 바와 같이 범죄 분석의 유형은 통계, 심리행동, 사건 정보 분석으로 나뉘지는데 이를 부서 단위에서 구분하지 않고, 종합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둘째, 범죄정보를 선제적·융합적 경찰활동에 활용하고 있다. 정보가 조직의 의사 결정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하면 융합적 활동이 가능하다(Bardach, 2000: 29). 한국 경찰의 업무 구분인 예방, 순찰, 검거의 구분이 아닌, 회피, 우회, 제압 등 다양한 대응을 가능하게 한다. 런던 경찰청에서 인신매매 조직에 대해 범집행하기 위해 주된 범죄 혐의인 인신매매에 대한 직접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을 때, 마약 거래의 증거로 일단 추방하면서 위협에 대응한 사례 등이 정보 분석을 활용한 선제적 활동의 예시라고 할 수 있다.

셋째, 범죄정보에 대한 민간 공유를 활발히 하고 있다. 영국 경찰은 범죄정보에 대해 민간과 공유하는 풍토가 활발하다(Jim & Mark, 2013: 16). 런던 경찰청은 범죄 발생 지역별 통계를 주기적으로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있다. 포츠머스 경찰서에서는 인구통계를 활용해 지역별 범죄 유형을 분석해 경찰 내외부에 공유하고 있다.

IV. 한국 경찰에의 시사점

1. 영국과 비교한 한국 경찰의 범죄정보 운영의 문제점

1) 제도적 측면

영국 경찰은 국가 차원에서 범죄 정보의 운영 체계인 NIM을 운영하고 있다.

반면, 우리 경찰은 범죄 정보에 대한 통일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고, 범죄 통계, 사건 정보, 행동 정보에 대해 각각 유형별로 훈령이나 업무 지침으로 운영하고 있다(이동환·표창원, 2005).

첫째, 통계정보는 경찰청에서 생산하는 ‘범죄통계원표’에 의거한 범죄통계가 있다. 또 지리적 범죄발생정보를 ‘지리적 프로파일링시스템(GeoPros)²⁾’이라는 정보시스템에서 현출하기도 하는데, 이 역시 통계적 범죄정보로 구분할 수 있다. 한편 경찰의 각 부서들도 소관 범죄 유형별로 통계를 취합하고 집계한다.

둘째, 범죄에 대한 사건 정보들도 다양하다. 우선 구체적인 사건의 수사 서류와 형사사법정보망(KICS)에 입력되는 정보가 대표적이다. 한편 주요한 사건에 대해 내부 보고하는 보고서와 범죄 첩보, 중요 상황 발생 시 보고하는 상황보고서들도 사건 정보이다. 한편, 추가 범죄에 대한 정보로서, 생성되는 지문, 전과 자료 등도 사건 정보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셋째, 경찰이 분석대상으로 하는 범죄 심리행동 정보는 우선 상습성이 강한 범죄인 ‘수법 범죄자’에 대한 행동 정보를 별도 수집한다. 그리고 중요 범죄자에 대한 심리행동분석정보를 ‘과학적 범죄분석 시스템(SCAS)³⁾’라는 시스템을 통해 별도로 입력한다.

이같이 수집되는 경찰의 범죄정보는 다양하고 풍부하다. 그러나 정보들이 별도로 관리되고, 분석을 종합적으로 하는 부서가 없다는 지적은 다양하게 지적되고 있다. 이렇게 범죄 정보의 유형별로 분리하여 관리되면서 범죄정보 처리에 대한 기준을 통일시켜 운영하는 제도적 기반이 구성되어 있지 못하다.

2) GepPros는 지역별 범죄위험도 측정, 시간대별 범죄위험도 측정을 목적으로 지역별 발생 범죄데이터를 저장하고 있으며, 범죄예방 및 수사에 이용되고 있다.

3) SCAS는 범죄사건 진행경과 확인을 목적으로 현장감식결과보고서, 감식·감정 진행 정보를 저장하고 있다.

2) 조직적 측면

영국은 국가, 광역, 기초 단위의 경찰관서에서 정보 부서를 운영하고 있다.

우리 경찰도 각 단위 경찰 관서별로 정보 부서를 운영하고 있다. 경찰서의 기본적인 부서 편제와 업무 분장을 보면, 1) 청문감사관(민원접수 및 내부 감사) 2) 경무과(인사/예산/장비 관리) 3) 생활안전과(지구대, 파출소 등 순찰과 예방활동 부서 운영) 4) 여성청소년과(여성청소년 관련 범죄 대응) 5) 112종합상황실(112신고에 대한 대응과 정보 보고/전파) 6) 수사과(경제·지능범죄 수사) 7) 형사과(강력범죄 수사) 8) 경비과(집회시위, 재난 등 대응) 9) 교통과(교통소통, 단속 등) 10) 정보과(각종 정보수집 및 분석) 11)보안과(대공 방첩 등)으로 구분되어 있다.

이러한 구분에 따르면 ‘정보과’에서 범죄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역할을 주관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현재 우리 경찰의 정보부서가 범죄정보에 대해 차지하는 역할은 주도적이지 않고(이창무·문경환, 2011: 176-188), 범죄정보를 전문으로 분석하는 조직적 활동이 영국과 비교하면 미흡하다. 그 원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전술한 바와 같이 각종 유형의 범죄 정보들을 관리하는 부서가 분리되어 있기 때문이다.

상술한 각 유형의 범죄정보를 관리하는 부서를 경찰청 과 단위로 정리하면 아래 표와 같다.

〈표 2〉 범죄정보의 유형과 관리부서

통계 정보	사건 정보	행동 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범죄통계(수사기획과) ○ 지리적발생정보(범죄분석담당관실) ○ 유형별 수기통계(죄종별 소관 課) 	<ul style="list-style-type: none"> ○ KICS자료(수사기획과) ○ 범죄첩보(범죄정보과) ○ 사건보고서(죄종별 소관 課) ○ 상황보고(상황실) ○ 여죄, 지문, 전과 자료 등(범죄분석담당관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법정보(범죄분석담당관) ○ 심리행동분석정보()

둘째, 경찰은 범죄 정보에 있어 수직적 보고는 활발하지만, 수평적 공유나 분석에서는 익숙하지 못하다. 경찰은 상하 구조로 경찰청, 지방경찰청, 경찰서의 계층을 두고, 중앙 통제식 구조를 운영하고 있다. 경찰청, 지방청, 경찰서의 상하 조직 간은 물론, 관서장(경찰청장, 지방청장, 경찰서장), 부서장(국장, 부장, 과장), 실무자 간 수

직적 정보연결을 중심으로 운용되고 이를 뒷받침하는 규칙과 계획, 지침 등이 촘촘하다.

이런 수직적 유통에 익숙한 조직운영은 부서 간 정보공유와 검증보다는 개별 사안에 대한 보고로서 종료되고, 새로운 의사결정으로 환류되는 활동이 부족하다.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조직의 정보부서는 정보를 통합하고 조직의 의사결정을 뒷받침하는 활동에 주력해야 한다(황규진, 2009: 73). 하지만 우리 경찰 정보부서의 업무는 ‘조직 전체의 정보 통합과 의사결정의 지원’보다 정부 정책의 보좌, 집회 상황 대응, 관서장의 참고 정보 생산 등 고유한 정보 생산 역할을 수행한다. 그 한계 때문에 범죄정보를 통해 경찰의 의사결정을 종합하는 역할을 수행하기 어렵다.

3) 문화적 측면

제도와 조직뿐 아니라, 문화적인 요소도 중요하다. 양국 경찰 기관 종사자들에 대해 실시한 비구조적 인터뷰에 따르면, 영국에서는 전략, 전술, 작전 등 다양한 의사결정에 있어, 객관적인 근거를 중시하고, 결정 절차를 구조화하려는 노력을 다양하게 확인할 수 있었다. NCA와 런던경찰의 정보국은 상층부에서 현장 조직까지 회의, 의사결정, 환류를 순환하는 절차를 운영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아직 그러한 근거와 결정 절차에 대한 신뢰가 약하고, 대표적인 의사결정 근거인 범죄 통계에 대한 신뢰도 낮고, 정확하게 기록하지 않는다는 답변도 청취하였다(탁종연, 2006: 68).

이러한 차이점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경찰의 강한 위계 구조로 인해 의사결정의 근거를 굳이 객관화할 필요 없이 상사의 명령에 의존하면 된다는 점, 국가 경찰 체제를 택하고 있기에 지역별 치안 현안을 분석하기 보다는 중앙 경찰의 시책에 따르면 된다는 점 등이 차이점일 것이다. 또한 결정적으로 수사구조 측면에서도 검찰의 결정에 따르면 되는 우리 체제상 경찰의 자율적인 결정과 그 결정 근거를 발전시키기 어려운 여건이었을 것이라 사료된다.

이러한 차이점은 의사결정의 과학화를 발전시키는 것을 상대적으로 후순위로 인식하고, 특히 그 발전을 위해 민간과의 정보 공유도 활발하지 않게 한다.

4) 소결

영국 경찰과 비교해서 본 우리나라의 범죄정보 운영 체제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

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영국은 국가 전체에서 범죄 정보를 운영하는 통일된 기준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 기준에 따라 기초, 광역, 중앙 단위까지 범죄 정보를 평가하고, 배포하며 활용하는 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정보 체계를 통해 생산된 지식 정보를 경찰 활동에 반영하는 분야도 범죄 예방, 수사를 비롯하여 융합적이고 선제적인 방식으로 활용하도록 노력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다양한 형태의 범죄 정보를 별도로 관리하고 있다. 그리고 그 활용 방식도 충분히 알려져 있지 않다(이동환·표창원, 2005).

〈표 3〉 우리나라와 영국의 경찰 범죄정보 운영기준 등 비교

	영국	우리 나라
정보 유통 및 평가 기준	NIM으로 통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문보고, 범죄첩보, 상황보고, 사건 보고로 할거 ○ 유통 방식에 따라, 평가 기준 다양
정보 체계의 반영	NIM이 범죄예방/수사/기관간 역할 조정 / 기관내 자원 배분(정책 결정)에 반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류별 정보 활용이 다름 : 건문보고-정책 참고 / 상황보고-상황 파악 / 범죄첩보-수사 판단) ○ 보고 後 반영 여부 불확실

둘째, 영국은 등급별, 경찰관서별로 정보 부서를 운영한다. 이들은 어디까지나 범죄정보의 수집·분석·배포·활용을 중심으로 다양한 활동을 한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 경찰은 정부 정책이나, 집회·시위 정보와 함께 범죄 정보를 취급하고 그 활동이 체계적으로 알려져 있지 않다.

〈표 4〉 우리나라와 영국의 경찰 정보 부서 규모 및 역할 비교

	우리 나라	영국
범죄정보 기능 역할	정부 정책 정보 집회 시위 정보 범죄 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조직·중요범죄자료 분석 / 지원 주요 범죄인 프로파일링 지원 범죄추세 분석 정책 반영 (NCA-국가 / 런던·포츠머스-해당 지역) 수사부서에 범죄분석하여 정보 제공 범죄 장소/시간/특성 분석 ⇨ 예방 및 선제적 활용 (미리 용의자群 체포 등)

2. 범죄 정보 운영의 발전 방향 제언

1) 범죄 정보 통합 운영 제도 구성

첫째, 유형별로 개별적으로 정의된 ‘범죄 정보’에 대한 규정을 통합적으로 재구성해야 한다. 단일 사건 수사를 위한 ‘범죄 첩보’ 수준이 아니라, 통계적 정보(범죄통계-KICS), 범죄사건 정보(소위 첩보, 조직도, 계좌 등), 범죄행태 정보(프로파일링 정보) 등까지 포섭하여 범죄정보의 개념으로 재설정해야 한다.

둘째, 범죄 정보의 활용을 포괄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범죄 정보의 활용과 순환이 ‘범인을 검거’하는 수사 목적의 활용에 그치는 것은 단견이다. 수사 단서 뿐 아니라 정책적 제언(통계/행태 분석), 개별 사건 및 특정 범죄에 대한 활동 방향 제언(수사/예방/절충 등 역할) 등으로 그 역할이 확대 되어야 한다.

셋째, 이와 같은 통합적 개념 설정과 활용 범위의 확산을 전제로 정보의 수집, 분석, 활용, 환류 체제를 통합적으로 재구성해야 한다. 영국의 NIM이 모범 사례가 될 것이며 정보화시스템을 활용하면 시행착오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며 정착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통합적 범죄정보 운영 제도를 위해서는 범죄정보의 수집, 분석, 활용에 대한 명확한 법적 기반을 마련해야만 할 것이다.

2) 통합 분석 조직 운영

전술한 범죄정보에 대한 통합 개념과 활용은 이를 관리할 주체라는 조직에 대한 문제로 환원된다. 현재 경찰의 범죄정보 관리부서는 유형별로 나뉘어져 있는 바, 이를 조직 단위에서 정보와 의사결정을 통할하는 부서를 운영해야 한다.

우리 경찰이 정보를 관리한 연혁이, 각 부서단위로 나뉘어져 있어, 쉽게 최적의 대안을 마련하기는 어려우나, 다음과 같은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첫째, 정보 부서를 범죄정보와 조직 의사 결정 중심의 부서로 재편하는 것이다. 이것이 다른 나라의 운영 사례를 볼 때 가장 보편적인 대안이다. 경찰 조직의 큰 변화를 수반하는 것이지만, 최근 경찰 정보의 역할 모색 변화 논의와 병행하여 살펴 볼 대안이다. 영국의 정보부서는 범죄 정보를 분석하는 것을 주 업무로 하며, 경찰 조직의 의사 결정을 통합하는 변화를 위한 근본적인 해법이기에 때문이다. 이 방안은 현행 경찰 정보부서 인력 전원인 3,480명(경찰청, 2016: 2)을 대상으로 한다.

둘째, 현행 경찰의 기능 구조를 유지한 채 별도의 범죄정보 분석 부서를 신설하는 것이다. 이 안은 경찰 내에서도 검토된 바가 있으며 일부 자료에 따르면, 각 지방청 별 2명(제주), 3명(광주, 대전, 울산), 5명(부산, 대구, 인천, 강원 등 그 외 모든 지방청), 8명(서울, 경기) 등 총 86명을 배치하고, 경찰서도 도시 중심의 1급서(129개서, 각 2명)에 258명을 배치하여 총 344명의 부서를 신설하는 것이다(경찰청, 2008: 47).

셋째, 부서 별 정보 운영 체제를 현행과 같이 유지하되, 정보시스템을 통한 통합적 분석 체제를 구축해나가는 것이다. 이는 조직과 제도의 커다란 변화 없이 현행 형태를 유지하면서도, 별도의 ‘통합 범죄 데이터베이스’를 구성하여 여기에서 생성되는 정보를 각 경찰활동에 활용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러한 방식은 향후 자치경찰로의 변화를 앞두고, 대비해야 할 사항이기도 한다.

3) 범죄정보 분석에 근거한 의사결정 문화 형성

제도와 조직적 변화가 이뤄진다고 하여도, 문화적 변화는 가장 어려운 일일 것이다. 우리 경찰의 위계적 조직구조와 수사구조상 자율적인 의사결정이 어려운 여건에서 형성된 현재의 직관적이고 빠른 의사결정, 상부의 의사결정에 복종하는 문화가 변화해야 한다. 지역별 치안여건에 맞는 의사결정을 하고 이를 위해 범죄 정보를 분석하고, 그 과정이 자율적으로 진행되는 문화로 변화되어야 한다.

이러한 변화는 신속하게 변화될 수 없으며 자치경찰 체제의 도입과 수사구조 개혁이라는 경찰 내·외부를 둘러싼 커다란 환경 변화를 고려해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경찰 스스로의 문화 개선 노력 역시 동반되어야 할 것이다.

V. 결론

지금까지 영국의 범죄정보 운영 체제를 살펴보고 이것이 우리나라의 범죄정보 분석 및 운영 체제의 개선방안과 관련하여 갖는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영국 경찰은 지방경찰체제를 근간으로 중앙경찰기관을 운영하면서 전 국가적인 범죄 정보 운영하는 제도를 NIM을 통해 정착시키고 있다. 중앙집권식 경찰활동이 아닌 조정과 협력을 통해 범죄와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경찰기관의 정보부서는 통합적인 범죄 정보 분석을 통해 범죄를 예방, 제압할 뿐 아니라, 선제적이고 융합적인 방식으로

경찰 의사결정을 지원하고 있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 경찰은 각 부서별로 통계, 사건정보, 심리행동 정보 등 유형별 범죄 정보를 운영하고, 이를 활용하는 방식도 통합적으로 형성되어 있지 않다. 또한 조직적으로도 범죄 정보를 기반으로 조직의 의사결정을 효율적으로 분석 활용하는 사례가 영국에 비교하여 활발하지 않다. .

향후 발전을 위해 범죄정보에 대한 통합적인 운용제도와 분석 조직을 구성할 필요가 있다. 범죄 정보 분석 조직은 현재의 정보부서의 역할을 재편하거나, 각 부서의 현재 역할을 유지하면서도 정보시스템을 통해 별도의 분석 시스템을 운영하는 것을 모색해야 한다.

영국 경찰의 발전상은 오랜 전통의 축적에 따른 과학성과 체계적 운영에 대한 집착에 가까운 엄밀함에 기반하고 있다. 우리 경찰은 영국보다 발달한 전산체제와 중앙경찰조직을 통해, 정보 운용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기반을 갖고 있음에도, 범죄정보에 대한 우선순위가 낮고, 상향적 보고 우선하는 풍토에서 아직 발전할 여지가 많이 남아 있다.

이러한 범죄정보 역량의 취약성은 오히려 경찰로 하여금 범죄를 어떤 방법으로 대응할지를 스스로 결정하지 못하게끔 하는 ‘위험 대응·안전 확보에 대한 의사결정권 손실’이라는 결과를 초래한다.

따라서 우리 경찰은 범죄정보 역량을 키워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경찰 스스로 범죄정보 운용을 과학적·객관적·주체적으로 할 수 있는 눈과 귀, 판단력을 단련하는 기본 역량을 바로 세워야 한다. 인력과 예산이 부족할 수 있지만, 범죄정보 역량 육성을 통해, 다른 자원을 가장 효율적으로 배분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기에, 범죄정보 분야는 다른 분야보다 더 적은 인력·예산 투자로 훨씬 큰 성과를 거둘 수 있는 분야라고 생각한다.

본 연구는 범죄정보 운영과 관련해서 영국과의 비교를 통해 우리가 갖고 있는 문제점을 도출하고, 향후 개선해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다. 각 문제점과 개선 방향이 개괄적인 조사와 대비, 제언에 그친 점은 본 연구의 한계이다. 이후 더욱 심화된 후속연구를 통해 보다 구체화되고, 실천적인 대안이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김학경, 이성기 (2012). 영국지방자치경찰의 새로운 패러다임: “2011 경찰개혁 및 사회책임법”과 “국립범죄청”을 중심으로. *경찰학연구*, 12(1), 158-164.
- 박주원 (2004). 범죄정보법제에 관한 연구: 행정작용으로서의 범죄정보활동과 체계를 중심으로. *지방자치법학연구회*, 3, 52-57.
- 이동환, 표창원 (2005). 경찰의 범죄정보 수집 및 분석 체계화 방안.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2005-12, 15-48.
- 이동희, 이윤, 장윤희 (2005). *범죄수사학*. 경찰대학, 217-230.
- 이창무, 문경환 (2011). *경찰정보학*. 박영사, 176-188.
- 장윤식 (2012). *선진국의 사이버범죄 정보분석 제도 도입방안*. 치안연구소 책임보고서.
- 탁종연 (2006). 범죄통계의 진실성 : 경찰관들의 인식을 중심으로. *한국경찰연구*, 5(2), 68-76.
- 한상암, 박한호, 이명우 (2013). 범죄예방을 위한 정보주도형 경찰활동(ILP)에 대한 연구: 국내도입논의를 중심으로. *한국경호경비학회지*, 36, 84-90.
- 황규진 (2009). 치안정보의 개념에 관한 연구. *경찰학연구*, 9(1), 73-95.
- 경찰청 내부분서 (2008). *수사조직진단과 인력 재배치*, 47-50.
- 경찰청 (2016). *경찰통계 연보*.
- James, A. (2013). *Examining Intelligence-led Policing*. Palgrave macmilan.
- Bardach, E. (2000). *A Practical Guide for Policy Analysis*. Chatham House Publishers.
- Jim, G., & Mark, B. (2013). *The Financial Cost of Fraud Report 2013*. ICJS.
- NCPE (2005). *Guidance on the National Intelligence Model*.
- Ratcliffe, J. H. (2007). *Integrated Intelligence and Crime Analysis: Enhanced Information Management for Law Enforcement Leaders*. Police Foundation.
- 영국 국가범죄청 홈페이지, <http://www.nationalcrimeagency.gov.uk>.
- 영국 런던경찰청 홈페이지, <https://www.met.police.uk>.
- 영국 포츠머스경찰서 홈페이지, <https://www.cityofportsmouth.com/police>.

【Abstract】

A Study on Policing Based on Crime Intelligence in UK

Jang Kwang-ho* · Kim Moon-kwi**

In the police, crime intelligence is the basis of decision making for police 's original activities in response to crime. Police decision making is done in various ways such as investigation and prevention of individual cases, allocation of resources, organization prioritization, etc.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activities of the UK policing in analyzing crime intelligence and to reflect them in the policing and to draw implications for the comparison with the Korean police.

The UK operates a central police agency based on the local police system, and establishes a National Intelligence Model (NIM) system that operates crime intelligence throughout the country. In order to respond to crimes and risks through coordination and cooperation, rather than by centralized police activities, the intelligence department of the police agencies should not only prevent and suppress crime through the analysis of integrated crime information, but also make police decision-making.

In contrast, the Korea police operate crime intelligence, such as statistics, case intelligence, and there is no integrated way to use it. In addition, there are few cases in which the organizational decision - making based on crime intelligence is utilized efficiently and systematically. For development, it is necessary to construct an integrated management system and analysis organization for crime intelligence. Criminal Intelligence Analysis Organizations should seek to reorganize the role of the current intelligence department or to operate a separate analysis system through the information system while maintaining the current role of each department.

Keywords: Police, Crime Intelligence, Crime Analysis, UK, Decision Making

* Police officer, Police Science Institute, Korean National Police University.

** Assistant Professor, Dept. of Law, Police and Public Administration, Hoseo University.